

주소깡의 상상력이 현실로: 커피챗에서 만난 이도현 님과의 대화

어느 날 저녁, 캠퍼스 주변 카페에서 비영리 주소모음 커뮤니티 '주소깡'을 운영하는 이도현 님과 커피챗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소깡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멋진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 한 잔 할 여유를 가지자는 생각이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도현 님이 가진 비전과 열정에 큰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도현 님은 평소 소탈한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주소깡 주소모음](#) 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이 플랫폼은 특별한 기술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현 님은 대학교 시절부터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중, 사람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현재의 아이টেম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도 회사에 취업하기보다는 자신이 설립한 주소깡을 운영하며, 커뮤니티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도전적인 결단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의 고된 부분과 보람찬 부분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특히, 그는 자발적으로 모여든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이어주고, 그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소깡이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시간 남짓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도현 님이 가진 열정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주소깡의 발전 방향은 제게도 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일상적인 과제와 학업에 치우치기보다, 도현 님처럼 현실적이면서도 가치 있는 사회 기여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넘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편함을 기술과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도현 님과의 커피챗은 제게 작은 혁신의 씨앗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주소깡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리고 정보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됩니다.